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알릴 캐릭터 찾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개최...국민 누구나 참여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포스터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팀 장	이은호 (02-2110-1340)
	디지털소통팀	담당자	주무관	김정은 (02-2110-1346)



공모자격 전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 개발

제출규격

- 캐릭터 기본형 1종, 응용형 2종 이미지 파일
- A4크기, 해상도 300dpi 이상 (원본파일은 선정작에 한해 제출)

결과 발표

04. 17.(금)
(선정자에 한해 개별 안내)

제출방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신청 서류 다운 후
이메일 제출 (kmcc.contest@gmail.com)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팀) : 100만원 (위원장상)
- 우수상 1인(팀) : 50만원
- 장려상 1인(팀) : 20만원

⚠ 유의사항

공고문 내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